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8월호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기억하다

노래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 8월3일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

1980년 5월 27일 새벽, 서른살 청년 윤상원은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숨지기 전 윤상원은 중고생들과 여대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삶이 뮤지컬로 다시 살아난다. 광주시 광산구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노래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오는 8월 3일부터 광산문화예술회관 네이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윤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이번 작품에는 연극 ‘리차드 3세’, ‘오이디푸스’, 창작발레 ‘호이랑’의 서재형 연출가와 뮤지컬 ‘영웅’, 창극 ‘메디아’의 대본을 맡은 한아름 작가가 참여했다. 또 ‘입을 위한 행진곡’ 관련 악곡 등을 만든 작곡가 황호준이 참여해 일찍부터 기대를 모았다.

뮤지컬은 시대의 들불이었던 청년이자 불의에 맞선 정의의 투사였던 윤 열사의 삶과 고뇌를 감동

적인 연기와 노래로 보여준다.

생전에 윤 열사는 광주 지역 최초의 ‘위장취업자’였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들불 야학’의 교사로 활동하며 치열한 청년기를 보냈다. 광주민주항쟁 당시에는 투사회보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으며 항쟁 지도부 대변인을 맡았다. 윤 열사는 임철우의 소설 ‘봄날’에 나오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실존인물이며, ‘입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윤 열사의 생각과 활동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로 표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윤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이번 노래극 이외에도 5·18 40주년을 맞은 올해 광산오월문화제, 열사 일대기 그림 제작 등 윤 열사 정신을 문화예술로 선양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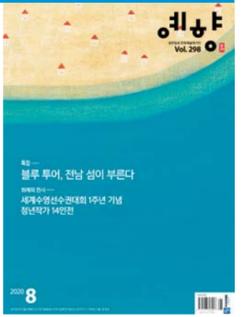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윤상원 열사의 삶을 담은 노래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오는 8월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예남

조용한 힐링여행 보석같은 ‘전남 섬’ 불거리·먹거리 여수의 여름 속으로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 여름 휴가는 최대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겠다는 이들이 많다.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에 섬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숨겨진 보석같은 섬을 찾아 떠나려는 붐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남’ 8월호 특집은 ‘블루 투어, 전남 섬의 재발견’이다. 전남 서남해에는 보석같은 2165개의 섬들이 있다. 과거 소외의 상징이었던 섬은 이제 자연관광과 이야기를 품은 해양관광 자원으로 변모했다. 점점이 뿌려진 전남의 섬, 매력 발산 ‘그 섬에 가고 싶다’, ‘힐링 관광 광지로 사랑받는 국내의 섬으로 안내한다.’

‘짜뭍짜뭍남도 한 바퀴’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로 떠난다. 여수에는 해상케이블카와 아쿠아플라넷, 여수 예술랜드,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채롭다. 오동도와 금오도 비렁길 등 생태여행 코스도 여행자의 발길을 이끈다. 갯장어(하모)와 돌산갯김치 등 먹거리까지 풍부한 여수의 여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남 초대석’의 주인공은 최근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펴낸 만화가 이희재 작가다. 완도 출신 이희재 만화가는 1980년대 사회성질은 리얼리즘 만화를 발표하며 한국만화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썼다. 작가를 만나 만화인생과 작품 세계에 대해 들었다.

휴가철 예술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화제의 전시

를 소개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Deep Dive into you’가 지난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했던 선수들과 당시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지면으로 만나본다.

도시에 활력을 주는 건축물을 찾아가 소개하는 ‘문화를 품은 건축물 기행’ 연재가 시작된다. 한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는 공공 건축물이다. 미적 감각이 가미된 건축물, 정체성 있는 공간, 시너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의 스톱시그널까지 ‘생활 속 디자인’들이 어우러질 때 도시는 빛난다. 독특한 컨셉과 미감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국의 유명 건축물을 찾아다니는 기행, 그 첫 번째는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국립해양박물관’이다.

이외에 고향 향수에 내려와 ‘새날 새모퉁이’를 그려가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미래를 위한 집 ‘호접몽가’, 시니어들의 아지트로 떠오르는 하나은행 복합문화공간 ‘라온지1968’, 울초 복원 작업을 끝내고 제 모습을 다듬은 백제계 석탑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이야기도 담았다. 자유와 소통의 철학자 강신주, 명연 국립남도국악원장, 힐링 플랜테리어 전문가 김해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출연 기록을 세운 나지완 선수와의 인터뷰도 준비됐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조인호 평론가가 본 ‘광주수영대회 1주년 기념 청년작가14인전’ <하>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 다른 시선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청년 작가 14인전-DEEP DIVE INTO YOU’ (8월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 중 삶과 인생에 대한 청년작가들의 시선은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준다. 양나희는 포항박스 골판지를 자르고 이어 붙여 부조 같은 화폭을 만들며, 거기에 회화적인 묘사를 곁들여 도시민들의 터전인 산동네를 표현하였다. ‘원(願)’ (2020), ‘밤의 연가’ (2018) 등에는 어둠이 깃든 산동네와 하늘 가득 별무리들의 장관으로 현실과 꿈, 슬픔 있고 없음 등에 관한 생각들을 투영시켜내었다.

또한 노여운의 퇴색한 골목길과 동네가게 풍경들에서 배어나는 푸근한 정취는 도시 재개발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도시민적 서정과 연민을 자아낸다. ‘스머들다’ (2019), ‘기억하다’ (2019), ‘남겨지다’ (2016) 등에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의 정겨움과 그리움이 담담한 필치로 담겨져 있다.

임현채의 그림들은 예술가이면서 주부, 육아로 쌓이는 일상의 고단함과 번민들이 일기처럼 퇴적되어 있다. 2019년 작품들인 ‘행복의 무게’, ‘시간’, ‘이불우산’ 등은 그런 일상의 흔적들이 세밀한 연필드로잉으로 묘사된 심중일기들이다. 현실

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일상과 예술 사이의 균형을 다잡는 ‘어떤 자세’ (2020) 도 이 같은 연작의 하나이다.

박성완은 도시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특정 장소의 연작이나 주변 생활 풍경들을 그려낸다. ‘구 도정 1’ (2010), ‘구 도정 4801’ (2015)는 몇 년 전에 제작했던 작품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묻혀진 옛 도청과 그곳을 둘러싼 얘기들을 환기시켜준다. 내려갈진 침묵과 사라지는 듯한 모호함, 굵고 힘 있는 필치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색채로 기억과 현재를 중첩시켜내었다.

동세대이면서 삶의 환경과 현재가 각기 다른 청년작가들의 시선은 이 시대의 풍경과 표정을 스펙트럼처럼 비춰낸다. 외적인 여건이나 심적 내면상 태나 한창 번민 많고 생각거리도 많은 시기, 하지만 불확실한 예술인생에서 작가로서 열정과 삶에 대한 진중한 접근들이 청년기의 귀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기성문화 속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대규모 국제행사도 도시의 기운을 북돋웠다면, 그 열기와 정성을 도시의 성장과 삶에도 지속시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우리 사회 문화의 든든한 밑거름 살려가야 할 것이다.

양나희 - 골판지 이어붙인 산동네
노여운 - 도시민적 서정과 연민
임현채 - 세밀한 드로잉 심중일기
박성완 - 도시의 역사를 기억하다
8월 5일까지 금호갤러리



이 시대와 사회를 대변하고 현실 현상 너머까지 문화의 층위를 넓혀가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열정도 그만큼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끝> (광주미술문화연구원 대표)



- 1 노여운 작 ‘기억하다’
- 2 임현채 작 ‘이불우산’
- 3 박성완 작 ‘구 도정’
- 4 양나희 작 ‘별의 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